

-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-

『뉴 글로벌시티(舊 뉴홍콩시티) 인천』 추진계획

I 추진 배경

- 일반시로부터 광역시(직할시)로 승격한 지 4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범한 민선8기는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적기
 - ※ 일반시(~'81) ⇒ 직할시·광역시('81~'22) ⇒ 초일류도시('22~)
- 인천이 경쟁력과 잠재력을 살려 세계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초일류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로드맵 마련

II 『초일류도시』와 『뉴 글로벌시티 인천』

□ 「초일류도시」란

- 초일류도시란 국내외 일류도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,
 - 5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세계를 선도하는 초스마트시티를 기반으로 문화, 역사,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행복도시
- '초일류도시 인천'을 위해 인천의 과거·현재를 재창조하는 '제물포 르네상스'와 인천의 미래를 여는 '뉴 글로벌시티 인천' 프로젝트 추진



□ 「뉴 글로벌시티 인천」이란

- '뉴 글로벌시티 인천(New Global-city Incheon)'이란 '뉴홍콩시티'를 확장한 인천의 미래발전 프로젝트로,
 - 탈홍콩 경제자본 유치에 넘어, 인천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글로벌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는 개념
 - ※ "New Global-city"란, 인천이 기존의 국내외 글로벌시티를 능가하는 새로운 글로벌 시티가 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

Ⅲ 『뉴 글로벌시티』 대상지역

○ (1단계) ‘인천 글로벌 서클’ 중심

- 개발여력이 있는 강화 남단, 영종과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내항, 수도권매립지, 그리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 중인 송도, 청라를 묶어 인천만을 둘러싼 “인천 글로벌 씨클”로 설정, 집중 검토



강화남단(19.2km²)	▶ 화도면 일원
영종(51.26km²)	▶ 경제자유구역, 준설토투기장 등
송도(53.36km²)	▶ 경제자유구역, 골든하버 등
내항(4.6km²)	▶ 1·8부두 등
청라 등(17.81km²)	▶ 경제자유구역 등

○ (2단계) 인천 전역 ⇒ (3단계) 인접도시 확산

Ⅳ 추진 방법

□ 뉴 글로벌시티 자문단 구성·운영

- (목적) 전문가와 함께 『뉴 글로벌시티 인천』 방향성 설정 및 추진
- (분야) 5개 분야(뉴 글로벌시티 인천 구현에 필요한 사항 전반)

《 뉴 글로벌시티 자문단 구성(안) 》

분과	주요 내용
금융·다국적기업	▶ 국내외 금융기업, 투자금융사 유치, 다국적기업 HQ 유치
창업·신산업	▶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활성화, 바이오·반도체·로봇·수소 등 신산업 육성
항공·물류	▶ 공항·신항 등을 연계한 무역·물류산업 발전
문화·관광	▶ 도시야경·경관, 공원·친수공간 조성, 국제적 축제·행사 개최, 레포트 활성화
도시벨류	▶ 도시디자인 설계, 인천 가치 재창조 등, 글로벌 대학·국제학교 유치 등

※ 뉴 글로벌시티 자문단 발족식('22. 9.~10.) → (가칭)비전선포식 예정

□ 뉴 글로벌시티 인천 마스터플랜 용역 실시

- (방향) 인천이 뉴 글로벌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도출(2023년)

□ 뉴 글로벌시티 TF단 운영

- (방향)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市 유관부서·기관으로 구성된 TF 운영
- (구성) 초일류도시기획관(단장), 관련사업 담당부서 실·국·본부장(내부 TF), 유관기관 담당 본부장(외부 TF)

※ 내부 TF단 Kick-Off 회의('22.9.8) 개최

-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한 새로운 원도심 창조 -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기본계획

I 추진 방향

- 인천시가 주도하는 내항 재개발 사업 구도로 전환
 - 경제자유구역 지정, 내항 주변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연계
-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업 공간으로 내항 개발
 - 미래성장산업 유치, 청년창업 공간 마련 및 스타트업 활성화
- 항만과 도시가 함께하는 문화·관광 복합 공간 조성
 - 문화의 즐거움이 있는 수도권 최고의 특화된 해양명소로 육성

II 추진 범위

- (공간적 범위) 인천 내항(1~8부두) 및 주변 원도심 지역
- (사업적 범위)
 - ‘중·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’ 총괄 관리 및 조정
 - ‘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 플랜’ 수립 및 추진



제물포르네상스를 출발점으로 인천 전역의 원도심 활성화 확산

Ⅲ 비전 및 추진전략(안)

비 전	제물포 르네상스, 초일류도시 인천의 시작 - 문화와 산업·관광이 융합되는 사람 중심의 원도심 구현	
목 표	원도심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	
추 진 전 략	경제 내항 재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	▶ 내항 1~8부두 경제자유구역 지정 ▶ 인천시 주도의 내항 재개발 추진 ▶ 신성장산업 유치 및 청년 창업공간 마련 등
	관광 항만 자원과 역사, 문화를 연계한 관광콘텐츠 다양화	▶ 항만 등 산업 시설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▶ 내항 및 수변 공간에 대한 시민 접근성 확보 ▶ 월미관광특구와 연계한 해양레저산업 유치 등
	교통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	▶ 보행자 및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▶ 1, 8부두 주변도로 화물교통량 경감방안 마련 ▶ 내항 재개발과 연계한 철도교통망 구축 추진 등
	주거 정주여건 개선으로 활력 넘치는 원도심 창조	▶ 쾌적한 수변 주거공간 조성 ▶ 노후주거지를 청년세대를 위한 정주공간으로 재생 ▶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위한 문화공간 확충 등
실 행 력 제 고	▶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▶ 유관기관 정책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▶ 전문가그룹 자문체계 구축 (제물포르네상스 자문단) ▶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공론화	

※ 상기 비전 및 추진전략(안)은 마스터 플랜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한 초안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

※ 추진 전략별 세부 실천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·추진할 계획임

IV 추진 일정

- 제물포르네상스 자문단 구성 및 운영 : 2022. 9.~
- 유관기관 정책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: 2022. 9.~
-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마련 : 2022. 10.~
- 마스터 플랜 용역 추진 : 2023. 3.~

※ 인천연구원 「제물포르네상스 연구단」 운영중 : 2022. 8.~ 2023. 6



참고

항만 및 도시재생 현장방문 예정지역

① 싱가포르

클락키 강변지역



- 과거 싱가포르항의 시작점, 물류창고 밀집지역을 수변구역으로 환경개선
- 기존 물류창고와 건물을 복원 개조하여 강변 공간으로 연출하고 리버크루즈 선착장과 수변공간을 연결하여 접근성 극대화

② 호주 (시드니, 브리즈번)

달링 하버



- (주 정부·지자체 주도의 적극적 사업추진)
 - 주 정부·지자체 차원의 공공 앵커시설 선투자로 조기 활성화
- (관광 상품화) 연중 다양한 행사와 차별화된 이벤트 개최
- (높은 교통 접근성) 도심지 연계, 해상터미널, 도시철도 환승센터 등

바랑가루 도시재생



- 옛 산업지역 22만m²를 상업시설 위주로 재개발하는 계획 진행중(신호경제지구)
- 기존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개발지구의 50% 이상을 공용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대표적 친환경적 도심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

사우스뱅크



- 1893년 유례없는 홍수인한 상권 파괴로 경기침체를 오래 겪었지만, 1988년 브리즈번 세계 엑스포를 통해 대규모의 공공예산 집행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
- 공공·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개발된 우수 사례
- 브리즈번 G20정상회의(2014) 등이 개최된 브리즈번 컨벤션 등이 위치함

브리즈번 파워하우스



- 브리즈번 도시재생사업의 우수 모델
- 과거 역사적인 공업 지대의 중심부, 1920~1970년까지 발전소였음
- 공업지대가 쇠퇴하면서 발전소로서의 이용이 멈추게 되고 방치된 공간을 도시의 예술가 및 도시외곽 거주자들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탄생

하워드스미스 부두



- (위치) 스토리 브리지 아래
- 유희화된 부두를 재개발하여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을 도입하여 일대를 문화·해양관광·레저문화 중심의 상생발전 도모
- 호텔과 레스토랑,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주를 이루면서 완전히 탈바꿈함